



보도시점

2025. 4. 24.(목) 11:00  
4. 25.(금) 조간

배포

2025. 4. 24.(목) 09:00

## “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절차 표준화로 반려동물 보험 활용길 열려...”

- 동물 질병명 3,511종, 진료행위명 4,930종 명칭과 코드 표준화 및 동물 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 추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였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며,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농식품부 고시)」 개정 전문(별첨)

|       |                        |     |     |                    |
|-------|------------------------|-----|-----|--------------------|
| 담당 부서 | 동물복지환경정책관<br>반려산업동물의료팀 | 책임자 | 과 장 | 홍기욱 (044-201-2651) |
|       |                        | 담당자 | 서기관 | 이재명 (044-201-2652) |